



해외신흥시장 확보를 위해 GCC, 호주, 러시아, 메르코수르 등과 FTA 추진 필요

- 지식경제부는 6.19일(목)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그리고 KIET·KIEP·SERI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권태균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FTA 산업포럼」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 「FTA 산업포럼」은 향후 점증하는 FTA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발족한 산관학간 협의체널로서,
 - 협상 진행과정, 사후대책 마련 뿐 아니라 협상대상국 선정, 협상전략 수립 등 사전단계에서도 Bottom-up 방식으로 산업계와 긴밀한 협의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데에 의의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태균 무역투자실장은 한미 FTA가 타결되고 한-EU FTA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지금, 새로운 환경변화에 걸맞는 추진전략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
 - 과거 우리가 FTA 후발국으로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다른 국가들을 'Catch up' 하는 데에 주력하여 왔다면,
 - 앞으로는 동북아의 'FTA 선도국' 으로서 우리의 실리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능동적,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
- 이의 일환으로 이날 산업포럼 첫 회의 의제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연구결과인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FTA 추진방향」을 발표
 -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FTA 추진목표로는 해외시장

확보를 1순위로 하고,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도 부수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 추진원칙으로는 선진국의 기술이전·산업구조화 효과와 개도국의 신흥시장 선점·자원확보 효과를 순차적으로 연계한다는 '선·후진국간 연계' 와, 대상국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FTA를 체결한다는 '유연한 포괄적 FTA' 를 제시

- 권 실장은 향후 산업포럼을 통해, 5년간의 FTA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Consensus-building을 강화하고, 업계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산업계 입장에서 본 향후 FTA 추진방향 (SERI)

1. FTA의 추진목표

- 산업계에서는 FTA의 추진목표로 FTA의 가시적 효과인 「해외시장 확대」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산업적 관점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도 추구 필요

〈산업측면의 FTA 추진목표〉

1순위 목표	2순위 목표	
해외시장의 확대	에너지·자원 협력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로 해외시장 진출여건 개선 -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는 후발국과 신흥 개도국 시장을 선점	- 지속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 도모	- 국내외 산업분업구조의 고도화 - 경쟁심화를 매개로 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 등

2. FTA의 추진원칙

- 국내 파급효과가 큰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충격



을 상쇄하는 한편, 국가별로 차별화된 추진전략 제시

과거	미래
동시다발적 FTA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계한 FTA - 선진국의 기술이전·산업구조화 효과와, 개도국의 신 흥시장 선점·자원확보 효과를 순차적으로 연계 - 산업피해 및 충격을 상쇄하며 추진
포괄적 FTA	'유연한' 포괄적 FTA - '높은 수준'만 고수하기보다는, 대상국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FTA 체결

- '높은 수준'만 고수하기보다는, 대상국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FTA 체결

3. FTA 추진대상 후보국

- 상기 목표에 따라 우리나라 21개 주요 수출대상국을 선정, 경제적 모델분석과 업계 평가를 거쳐 10개국을 후보국으로 선정

1순위 국가	2순위 국가	추가 검토 필요국가
GCC, 호주, 러시아, 메르코수르	터키, SACU, 카자흐스탄, 이집트	일본, 중국

- 상기 10개국은 우리나라 교역의 47.2%(일본·중국제외 시 15.9%)를 차지하여, FTA 기추진국 포함시 총 교역의 80% 이상에 해당
- 추진후보국별로 다수의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나, 가장 주된 목표를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

1] 해외시장 확대 측면에서 추진필요 국가 : 호주, 메르코수르, SACU, 이집트, 터키

- 호주 : 호주-태국 FTA 발효('05.1월) 이후, 태국산 일본브랜드 자동차 대비 한국산차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감소 등 상대적 불이익 발생

* 호호주 수출물량(대수) : 태국산 ('04) 55,406 → ('07) 154,979(180%) 한국산

('04) 72,468 → ('07) 71,200(Δ1.7%)

- 메르코수르 : 인구 2억7천만 거대시장(GDP규모 한국의 2배수준)으로 관세율이 높으며(제조업 11.6%) 현재는 미개척 시장*으로 최적의 FTA 추진 대상국임, 경쟁국(EU 등)과 FTA 협상체결시 자동차, 전화기 등 품목 피해 우려
- * 메르코수르 수출은 37억불('07년)이며 교역비중은 1%수준으로 미미
- * 메르코수르 수출액(백만불) : 전화기 한국 845(1위품목), EU 520(승용차 한국 531(5위품목), EU 812
- SACU : 남아공 등 SACU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의 중심지이나 한국과의 교역은 미미한 상황(對韓수출 19억불, 수입 18억불)
- *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 이집트 : 아랍권 최대 인구 보유국(7천3백만)으로 관세율이 20%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EU와 FTA가 체결되고, 미국과의 FTA논의도 진전되고 있어 우리측은 시장상실 가능성
- 터키 : EU, 중동, 중앙아시아를 모두 배후시장으로 보유한 투자유망국이며, FTA를 통해 투자보장협정, 비관세 및 제도개선 등 기대

2]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측면의 추진필요 국가 : GCC, 러시아, 카자흐스탄

- GCC : 전세계 원유매장의 38%, 한국 원유수입의 66%를 차지하는 자원 부국인 동시에, 경제규모 한국의 80%수준, 관세율 4.8%의 매력적인 시장,
- 러시아 : 막대한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정치외교와 연계된 에너지 정책 등으로 인해 FTA로 인한 자원협력 강화 가능성이 높은 국가
- * 또한, 대표적 고관세국가(11.4%)로 인구 1억4천만의 신흥시장으로의 가치도 높음
- 카자흐스탄 : 중앙아시아 전략적 요충지이자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보고
- * 매장량 : 석유 8위, 천연가스 11위, 석탄 8위, 우라늄 2위

3] 산업구조고도화 측면에서 추진필요 국가 : 중국, 일본

- 중국 : 당분간 중국은 저부가가치 범용제품, 한국은 고부가가치 프리미엄제품에 특화된 산업분업구조 유치가 기대되며, 서비스 분야 대중국 진출확대 가능
- 일본 : 일본과의 개방을 통한 경쟁심화 및 경제협력·기술협력·투자유치를 통한 우리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 확충